화이트보드 대신 PPT·TV 달라진 이랜드 훈련 풍경

바람은 셌지만 열정을 식히지 못했다.

K리그2 서울 이랜드FC는 2일부터 목포축구센터에서 1차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다. 새 시즌 화두는 희망. 아쉬운 과거는 잊었다. 지난 시즌 K리그2 최하위에 머물렀던 이랜드는 다가올 2020시즌을 도약의 시간으로 삼을 참이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지난해 여름 폴란드에서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일군 정정용 감독이 친정 팀 지휘봉을 잡았고, 선수단도 대폭 물갈이됐다. 전면 교체된 외국인 진용을 포함한 절반 이상이 새 얼굴로 채워졌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 연령대가 24세까지 내려갔다.

훈련 풍경도 변했다. 팀 미팅에서 화이트보드가 사라졌다. 대신 각종 경기·훈련 영상들과 다양한 수치가 담긴 PPT 자료들이 빈 자리를 메웠다. 선수들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채우라는 의미다.

훈련장에는 TV까지 등장했다. 겨울비가 내린 7일도 벤치 뒤에 TV가 비치됐다. 스텝 밟기와 패스로 몸을 덥힌 뒤 미니게임을 하던 선수들은 정 감독이 휘슬을 불자 옹기종기 모여왔다. 훈련장 곳곳에서 촬영된 영상을 살피기 위해서다. 실시간으로 이뤄진 분석을 직접 보여주며 토론하는 팀은 흔치 않다.

그런데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다. TV 옆 음향기기에선 계속 음악이 흘러나온다. 장르도 다양하다. K-POP부터 록까지 다양한 노래가 나온다. 몸으로 리듬을 타며 그라운드를 누비자 혹독한 체력훈련마저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

한편, 서울 이랜드는 8일 목포를 떠나 10일 태국 촌부리로 이동해 3주 간 2차 전훈을 한 뒤 제주 서귀포에서 최종 담금질에 나선다. 목포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성남 주전 GK 김동준,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 이적 합의

리빌딩-1부 도약 '윈윈'…문제는 이적료

〈성남FC〉 〈대전 하나시티즌〉

양 팀간 큰틀 합의…김동준도 결심
리빌딩 금액 확보 위한 성남 "13억"
대전은 "10억원" 이적료 줄다리기



성남FC 골키퍼 김동준이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과 대전의 이적료 협상이 남았지만 선수가 팀을 옮기기로 마음을 굳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1 성남FC의 주전 수문장 김동준(26)의 새로운 행선지가 확정됐다. 시민구단에서 올 시즌 기업구단으로 변신한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향한다.

K리그 복수의 소식통은 7일 "김동준의 이적이 확정됐다. 대전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이적에 대한 성남과 대전 구단의 합의는 큰 틀에서 마무리됐고, 선수 본인도 (이적) 결단을 내렸다"고 귀띔했다.

다만 최종 확정은 아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이적료를 놓고 두 구단의 견해가 다르다. 당연하지만 성남은 김동준이 주축 골키퍼인 만큼 최대한 보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성남은 최소 13억 원 이상을 부른 반면, 대전은 10억 원대를 희망한다. 일단 10억~13억 원 사이에서 양 측의 줄다리기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동준은 2020시즌을 앞둔 겨울 선수 이적시장에서 최대어로 손꼽혔다. 신장 189cm의 듬직한 체구를 자랑하는 그는 2016시즌 프로 데뷔 때부터 줄곧 성남의 골문을 지켰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 K리그1 승격과 강등의 아픔을 두루 맛본 베테랑이다. 1·2부를 통틀어 K리그 통산 기록은 97경기·94실점.

데뷔 시즌, K리그1 26경기에서 35실점을 한 김동준은 2017·2018시즌 K리그2를 거쳐 지난해 K리그1에서 28경기(27실점)를 뛰며 0점대 방어율을 선보였다. 올 겨울 K리그에 골키퍼 품귀 현상이 일며 가치가 폭등했다. 울산 현대 이적이 유력한 대구FC 조현우(29)와 나란히 모든 구단들이 탐내는 선수로 급부상했다.

울산 등 국내 여러 구단들이 관심을 가진 가운데, 김동준의 최종 선택은 대전으로 좁혀졌다. 한국축구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2010년 남아공)을 일궜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지낸 허정무 이사장과 황선홍 감독이 '투 톱' 체제를 일군 대전은 듬직하게 뒷문을 책임질 골키퍼의 영입에 큰 관심을 가졌다.

많은 축구인들은 "아무리 필드 플레이어들의 실력이 좋다고 해도 골문이 불안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전은 기업구단으로 새 출발을 알리며 단순히 K리그에 머물지 않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터라 최대한 검증된 자원들을 수급해야 한다. 대전은 올해 K리그1 재승격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력이 검증된 김동준이 스카우트 리스트에 포함됐다.

성남에게도 마냥 불편한 소식은 아니다. 김남일 신임 감독은 "(김동준의) 이적은 없다. 새 시즌도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선수단 리빌딩 재투자를 위한 상당한 액수의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연하 감독-연상 코치? 나이보다 능력!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에세이

33세 나겔스만 감독 獨축구서 돌풍
경남 설기현 감독, 7년 선배 코치로

요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핫한 팀은 RB라이프치히다. 2019~2020시즌 전반기 17경기에서 단 2패(11승4무)만 기록한 채 단독 선두(승점 37)에 올랐다. 리그 7연패의 절대 강자 바이에른 뮌헨과 전통의 강호 도르트문트 모두 발 아래다. 음료업체 레드불이 메인 스폰서를 맡아 2009년 재창단한 라이프치히는 사상 첫 리그 우승을 노린다.

돌풍의 중심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있다. 분데스리가를 쥐락펴락하는 그는 이제 겨우 33세, 선수로 뛰어도 좋을 나이다. 무릎부상으로 21세에 일찌감치 선수생활을 접은 뒤 처음 지휘봉을 잡은 건 29세 때다. 2015~2016시즌 강등권이던 1899호펜하임을 1부에 잔류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단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다. 지도력은 타고 났다. 이번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다.

나겔스만은 코칭스태프 관리도 탁월한 듯하다. 코치진 대부분은 감독보다 나이가 많다. 딱 한명만 한 살 어리다. 감독 혼자 힘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아마 감독은 코치에게 판을 깔아줬고, 코치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다.

나겔스만이 보여준 건 나이와 지도자 역량은 별개라는 점이다. 감독 중엔 풍부한 경험으로 성과를 내는 베테랑이 있는가 하면, 비상한 전술로 성적을 올리는 젊은 지도자도 수두룩하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다.

선후배 구분이 뚜렷한 우리 환경에선 감독과 코치의 거꾸로 된 나이가 생경스러울 수도 있다. K리그에서도 나이가 역전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 때 연하 감독·연상 코치가 화제가 된 적은 있다. 2003년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던 최순호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힘을 보탠 박항서 코치를 수석코치로 영입했다. 서열 문화가 엄격한 우리 사회에서 자신보다 3년 선배(호적상 나이와 별개로 박항서 77학번, 최순호 80학번)를 코치로 영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구단 고위층의 반대도 심했다. 코치 입장도 껄끄러웠을 것이다.



K리그2 경남FC 지휘봉을 잡은 설기현 감독(가운데)은 선배를 수석코치에 선임하는 등 코칭스태프 구성을 끝냈다. 유럽에서 오랜 기간 선수생활을 한 설 감독은 서열보다 코치 각자의 역할을 더 중시한 선택을 했다. 사진제공 | 경남FC

하지만 이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며 2004년 전반기 우승을 했다. 또 새로운 문화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런 모양새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2020시즌을 앞두고 K리그2(2부리그) 경남FC 사령탑에 오른 설기현 감독의 코치진 선임이 화제다. 1979년생인 설 감독은 자신보다 7년이나 위인 선배(김종영)를 수석코치에 앉혔다. 서로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오직 일 때문에 만났다. 이번 결정은 유럽 무대를 경험한 설 감독의 실용적인 사고가 반영됐다. 설 감독은 "나이를 따지고 싶진 않았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골랐다"고 했다.

감독과 코치는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다. 위계보다는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후배 감독이 선배 코치를 쓰는 부담감이나 선배 코치가 후배 감독을 돕는 껄끄러움을 털어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K리그에도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설 감독의 신선한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6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SK	30	19	11	0.633	0	3패
1	인삼공사	30	19	11	0.633	0	1패
3	KCC	30	18	12	0.600	1	1승
4	전자랜드	30	17	13	0.567	2	1승
5	DB	29	16	13	0.552	2.5	2승
6	KT	30	14	16	0.467	5	2패
7	현대모비스	31	14	17	0.452	5.5	2승
8	삼성	30	13	17	0.433	6	1패
9	오리온	30	10	20	0.333	9	1승
9	LG	30	10	20	0.333	9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단타스	BNK 썸	19.9	① 안혜지	BNK 썸	7.4	① 마이샤	KEB하나	13.1
② 쏜튼	KB스타즈	19.6	② 김한별	삼성생명	5.7	② 그레이	우리은행	11.5
③ 그레이	우리은행	19.2	③ 박혜진	우리은행	5.5	③ 박지수	KB스타즈	11.1
④ 배혜윤	삼성생명	17.4	④ 김단비	신한은행	4.5	④ 쏜튼	KB스타즈	10.9
⑤ 강이슬	KEB하나	17.3	⑤ 염윤아	KB스타즈	3.9	⑤ 김한별	삼성생명	9.7

NBA 〈7일〉

•경기결과

덴버	123 - 115	애틀랜타	
올랜도	101 - 89	브루클린	
샌안토니오	126 - 104	밀워키	
댈러스	118 - 110	시카고	
새크라멘토	111 - 98	골든스테이트	
유타	128 - 126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120 - 113	오클라호마	
워싱턴	99 - 94	보스턴	
인디애나	115 - 104	샬럿	

여자프로농구 〈7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18	13	5	0.722	0	3승
2	우리은행	17	12	5	0.706	0.5	3패
3	신한은행	17	7	10	0.412	5.5	2패
3	KEB하나	17	7	10	0.412	5.5	1패
5	삼성생명	18	7	11	0.389	6	2승
6	BNK 썸	17	6	11	0.353	6.5	1패

프로배구 〈7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현대건설	15	12	3	33	1321	1258	5승
2	흥국생명	15	9	6	30	1367	1230	3승
3	GS칼텍스	15	9	6	28	1313	1228	2패
4	인삼공사	15	6	9	16	1407	1478	1승
5	도로공사	15	5	10	16	1275	1368	2패
6	IBK기업은행	15	4	11	12	1267	1388	1패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우리카드	20	14	6	39	1818	1707	4승
2	대한항공	20	13	7	36	1828	1728	2패
3	현대캐피탈	19	11	8	33	1686	1634	1패
4	OK저축은행	20	11	9	32	1721	1748	2승
5	삼성화재	20	10	10	32	1757	1750	1승
6	KB손해보험	20	5	15	18	1825	1916	1패
7	한국전력	19	5	14	17	1594	1746	3패

해외축구 〈7일〉

•세리에A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1 인터밀란	18	45	14	1	3
2 유벤투스	18	45	14	1	3
3 라치오	17	39	12	2	3
4 AS로마	18	35	10	3	5
5 아탈란타	18	34	10	4	4
6 칼리아리	18	29	8	5	5
7 파르마	18	25	7	7	4
8 나폴리	18	24	6	6	6
9 토리노	18	24	7	8	3
10 볼로냐	18	23	6	7	5
11 베로나	17	22	6	7	4
12 AC밀란	18	22	6	8	4
13 우디네세	18	21	6	9	3
14 사수올로	18	19	5	9	4
15 피오렌티나	18	18	4	8	6
16 삼프도리아	18	16	4	10	4
17 레체	18	15	3	9	6
18 브레시아	18	14	4	12	2
19 제노아	18	14	3	10	5
20 스팔	18	12	3	12	3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임모빌레	라치오	19
② 루카쿠	인터밀란	14
③ 호날두	유벤투스	13
④ 주앙 페드로	칼리아리	11
⑤ 무리엘	아탈란타	10
⑥ 마르티네스	인터밀란	9
⑥ 벨로티	토리노	9
⑥ 일리치치	아탈란타	9
⑨ 베라르디	사수올로	8
⑨ 카푸토	사수올로	8
⑪ 밀리크	나폴리	7
⑪ 제코	AS로마	7
⑬ 고메즈	아탈란타	6
⑬ 자파타	아탈란타	6
⑬ 코레아	라치오	6
⑬ 페타그나	스팔	6
⑰ 고센스	아탈란타	5
⑰ 디발라	유벤투스	5
⑰ 만코수	레체	5
⑰ 발로텔리	브레시아	5

•세리에A 경기결과

레체	0 - 1	우디네세	
나폴리	1 - 3	인터밀란	

아마추어 경기결과 〈7일〉

배구

●2020 도쿄올림픽 남자배구 아시아 예선(중국 장먼)

•B조 예선 1차전=호주 3-2 한국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8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KT	〈부산사직〉	전자랜드

오후7시, SPOTV2

여자프로농구 〈8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KEB하나	〈부천실내〉	BNK 썸

오후7시,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아마추어 경기예고 〈8일〉

축구 ●제 16회 KBS N 1,2학년 대학축구대회(창녕군, 오전11시)

배드민턴 ●2020 말레이시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오늘의 토토 〈8일〉

•농구토토 W매치 7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1.08 (수) 19:00	KEB하나 vs BNK썸	부천실내체육관